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특별메시지

어린이는 하늘나라의 주인공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19:13-14)

먼저 어린이 주일을 맞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목사님은 1부 가족예배 시간이 늘 기다려 줍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을 만날 기대와 소망,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열망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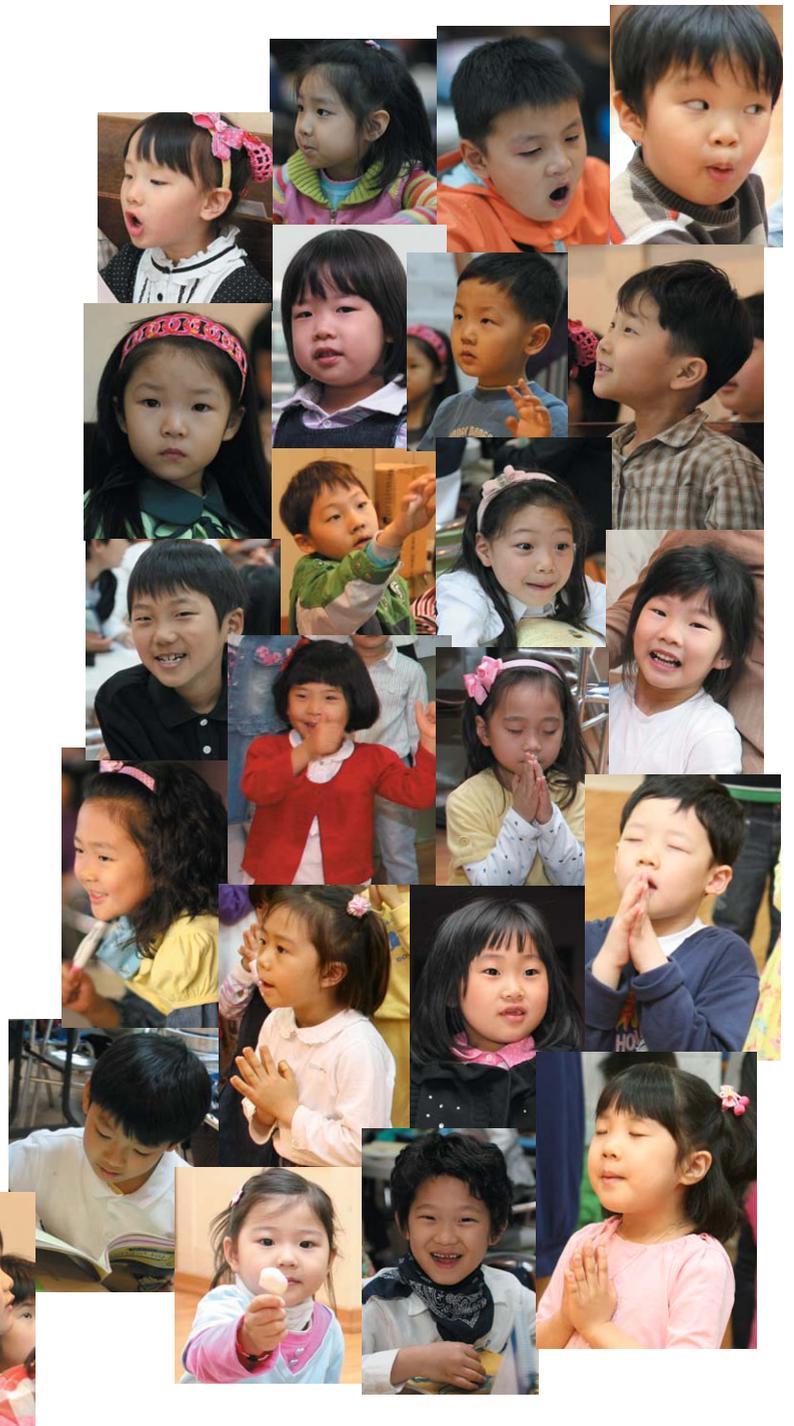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때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나아오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위대한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를 드린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어린이, 꿈꾸는 어린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 드려

-6월29일(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교회는 교회를 설립하면서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전국시민 양성을 교회의 목표로 세우고 계속 기도하며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넓고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선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교회 성도들은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을 드린다.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은 2008년 흥해작전이 끝난

후인 6월29일 주일에 드리게 되며 성도들 본인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불, 분납헌금, 적금(부금) 또는 현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 귀중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 전 본인과 가족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며 나의 쓸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더욱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애들아, 교회가자!”

오늘은 어린이 · 청소년 총동원 주일

어린이 주일인 오늘 각 교회학교별로 '애들아 교회가자! 어린이 · 청소년 총동원주일' 행사가 꾸밈게 열린다.

그동안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잃어버린 친구들과 처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 기도하며 전도지를 만들어 학교 앞에서 혹은 교실에

서 전도에 힘써왔다. 교회는 오늘 교회 오는 모든 어린이들의 입맛을 북돋워 주기위해 점심식사로 자장면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세대를 품어 생명을 잉태하도록 기도한다.

10대 집사 및 9대 권사 후보 선출

5월18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5월 18일(주) 찬양예배 후 제10대 집사 및 제9대 권사를 각각 70명씩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연다. 당회는 4월 30일(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의 1.5배수인 105명씩을 각각 추천하

였다. 명단은 다득점자 순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 집사 후보 명단 >

순위	명단	교구	순위	명단	교구	순위	명단	교구
1	김장섭	13	36	백도환	1	71	김도훈	13
2	양득춘	2	37	여태호	13	72	이규창	14
3	유관모	2	38	장인원	1	73	박광옥	3
4	박찬성	11	39	박길수	13	74	강영은	13
5	안홍희	11	40	정치은	2	75	김정호	12
6	류장철	1	41	김애수	11	76	임우택	5
7	신도섭	13	42	김태삼	10	77	이기일	12
8	주영도	12	43	장창빈	4	78	한종표	4
9	김상태	4	44	이준호	2	79	이태수	14
10	김예연	5	45	임광호	13	80	김광성	2
11	최정인	3	46	김민철2	6	81	송재현	14
12	천기성	11	47	김창훈	13	82	최명남	1
13	임병권	5	48	이희국	12	83	지상철	9
14	김상열	6	49	황병석	13	84	이길재	7
15	권혁달	4	50	김영상	3	85	신태봉	14
16	배준길	5	51	노재연	1	86	윤석원	3
17	한인진	3	52	변민중	4	87	박병옥	10
18	류충기	5	53	최승환	13	88	김동봉	1
19	안준홍	14	54	김승록	5	89	김주년	13
20	하태연	14	55	이지동	1	90	전용택	9
21	구정두	4	56	임선철	5	91	강석조	1
22	김희석	11	57	주영광	4	92	박찬양	14
23	유태서	6	58	권오철	14	93	강수남	1
24	정찬주	3	59	김영희	5	94	장윤석	4
25	김종철	3	60	박광서	4	95	김삼연	8
26	이진구	1	61	이건모	3	96	백남운	1
27	신규철	1	62	박명철1	1	97	이우진	1
28	백승갑	7	63	이승준	4	98	홍순석	1
29	황현진	14	64	송영준	11	99	이선우	1
30	김영주	4	65	김권집	7	100	안현식	1
31	강진환	13	66	홍창훈	10	101	강택근	2
32	조원섭	11	67	김성철	10	102	이경수	2
33	오교식	10	68	엄성용	1	103	박권준	1
34	김광민	4	69	박성호	13	104	서한석	1
35	박희래	1	70	김영일	8	105	김희동	2

< 권사 후보 명단 >

순위	명단	교구	순위	명단	교구	순위	명단	교구	순위	명단	교구
1	남상경	13	36	김유경	12	71	최위춘	6			
2	이신애	14	37	오은이	6	72	진경자	1			
3	김혜중	13	38	서순희	14	73	유묘중	9			
4	김정애2	13	39	이종철	8	74	김수복	11			
5	김신영1	13	40	최정희	7	75	송정식	5			
6	임태영	14	41	이영주	5	76	박영희	4			
7	배정자	2	42	김홍두	9	77	조복자	11			
8	이금순1	13	43	이옥심	2	78	황혜자	5			
9	이명희	11	44	고선옥	13	79	유선희	1			
10	김숙연	4	45	하 숙	11	80	이은희7	2			
11	임인자	12	46	박정순	3	81	김희재	13			
12	윤숙지	3	47	김예련	11	82	김효숙	4			
13	박진희	14	48	심명숙	1	83	고경순	14			
14	강영순1	6	49	최금봉	13	84	박공순	7			
15	김점숙	3	50	이민숙	3	85	김영서	14			
16	박이선	3	51	유종숙	6	86	안병숙	1			
17	권희순	12	52	김영례	7	87	백옥선	14			
18	윤복순	4	53	한남숙	14	88	김경아	3			
19	손순실	13	54	정찬수	4	89	김금복	4			
20	백예숙	4	55	소만수	3	90	조명옥1	1			
21	신영순	9	56	이정임	5	91	김정열	14			
22	김정희	12	57	성순자	14	92	정진연	9			
23	나상민	12	58	최 인	2	93	김정애	2			
24	조숙자	10	59	김정두	1	94	신순례	14			
25	윤연희	13	60	이은미2	13	95	홍희순	12			
26	홍승자	2	61	조순엽	1	96	이태인	3			
27	문순순	5	62	김초일	5	97	장영자	1			
28	윤영남	10	63	김남옥2	5	98	박승희	12			
29	정미연	14	64	홍영숙	13	99	장기숙	1			
30	권영실	2	65	고영숙	3	100	이은희	12			
31	박현영	1	66	이정임1	1	101	안주화	10			
32	최예인	2	67	신금진	2	102	김지숙	4			
33	김옥순	14	68	김계중	3	103	문옥일	1			
34	김영옥	1	69	김영희	1	104	임영숙	1			
35	노인숙	3	70	김명숙1	5	105	박춘자	2			

교구찬양대회

-5월 16일(금) 오후 7시 본당-

2008년 교구찬양대회 준비가 각 교구별로 한창이다. 이번 대회는 14개 전교구가 참여하며 예배대부 및 호산나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출연한다.

심사는 참여도(50점), 음악성(20점), 준비성(20점), 곡의 숙지도(암보) · 호응도(10점)으로, 예년 심사결과를 보면 음악성이나 준비성, 호응도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 참여도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는 각 분야별 점수배정을 반드시 3등급 이상으로 분류 배점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고 득점 교구에 사랑상, 차점 2개 교구를 믿음, 소망상의 순서로 결정하고 이하 희락상, 화평상, 충성상으로 각각 트로피를 시상하며 사랑상 수상교구는 5월 18일 주일찬양예배 시 특송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육군사관학교 진중 세례식

5월7일(수) 오후7시 - 육사교회당

2008년 육군사관학교 진중 세례식이 5월7일(수) 오후 7시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육사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며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육군사관학교 진중 세례식을 위해 당일 오후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서울교회 여성 선교합창단 창단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산하에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한데 이어 '여성선교 합창단'을 창단하여 문화의 기독교 화를 이루는데 더욱 힘쓸 예정이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거쳐 선교를 위한 다양한 대외 찬양(병원 및 구치소방문, 정기 연주회, 지방 및 해외공연, 그리고 절기와 행사에 따른 우리교회 내의 행사)을 하게 된다.

자세한 오디션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교회를 통해 세속에 묻든 이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화 되어 많은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한다.

어린이주일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

김미선 집사(14교구)

올 초 나의 짝사랑은 또 시작 되었다. 아마도 배넷병인지도 모르겠다.

치마를 입기엔 조금은 추웠지만 나뭇잎을 내고 들쭉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 '잘할 거야! 키가 작고, 몸집이 작아서 그렇지 아무지고, 똑 똑하니깐.' 맨 앞줄에 선 아이보다 뒤에서 지켜보던 내가 이렇게 떨리는 것은 분명 추운 날씨 탓은 아닌 것 같았다. 마이크를 잡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귓전에 맴돌면서 7년 전 지금보다 더한 짝사랑을 시작했던 큰 아이 입학식을 기억했다.

깨우고 입혀서 아침밥에 목숨을 걸었던 시간, 받아쓰기에 울고 웃었던 날들, 아이 숙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던 방학기간들, 아이 점수가 엄마 점수라 믿었던 바로 그날들...

그 아이가 벌써 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이다.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 그 청소년 시기다. 말끝마다 '몰라요'라고 한 동안 나를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싫어요'라고 말하는 '몰라요 싫어요 병'이 걸린 그런 사춘기 말이다. 그런 큰 아이를 통해 요즘



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다.

부모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으면서도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때론 그릇된 열심 때문에 자녀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혼돈을 겪게 하기도 했으니, 물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순 없다. 다만 들쭉아이 입학식 날 다시금 다짐한다. '아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바로 옆에서 연신 동생 입학식 사진을 찍어주는 큰아이가 믿음직스럽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작은 아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오늘은 큰 아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다. 점수는 묻지 않으려한다.(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수고했어! 애 많이 썼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며 꼬옥 안아주려다. 꽃비가 내리는 이 이쁜 계절에 가정의 중심이 아이들이 아닌 부부여야 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주님 말씀에 나의 짝사랑 배넷병은 치유될 것이다.

영아부로 오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

남영주 권사(영아부 부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눅2장40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교육은 보통의 유대가정에서 하였던 생후 3세 아기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문을 들려주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하므로 영아들이 하나님만을 알고 자라게 되는 전통적인 신앙교육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면서부터 3세 사이에 인격의 전반적인 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이 영아기 이전 시기에 형성되어진 기본적인 인격의 틀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평생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기들은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 누군가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얻는 자극이나 경험으로 영아의 신체와 정서, 지적,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인격체이며 특히 생후 3세 이전의 영아기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자녀가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교회학교 영아부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아들이 403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전달받는 최초의 신앙교육부서이며 온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점점 부흥되고 확장 될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 미래의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귀한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오윤결 집사(9교구)

제가 어렸을 적 주일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느라 새벽같이 나가셨다 밤늦게 돌아오셔서 얼굴 보는 것이 어려웠던 아버지를 하루 종일, 마음껏 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은 늘 소풍날이었습니다. 주일을 저는 좋아했고 주일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게 성수주일에 대해 특별히 가르쳐 주시거나 강조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뺏뺏한 새 지폐를 현금으로 받고 제가 가진 것 중 제일 좋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주일의 귀중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들다 선생님께 혼나고 신나게 노느라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해 졸 지언정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일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손수 저녁을 준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주일날 먹고 노는데 돈을 소비하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수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제게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회사 창고가 홍수로 물에 잠겨도 교회 예배가 우선이었던 아버지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려도 교회

가는 것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제게는 18개월 된 딸 유나가 있습니다. 유나는 주일날 교회 7층에 다다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유아부실로 뛰어 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노래하고 율동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마냥 좋아합니다. 기도라는 말만 들리면 무의식 적으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유나가 무엇보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는 딸 유나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 합니다.



2008 고구려교단대회를 준비하면서

작은 천국

임상현 장로(교구위원장)

전 가족 체육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교회 전 성도들의 단합과 화목을 위하여 실시되는 2008 고구려교단대회가 오는 16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3월부터 교구마다 참가곡목이 결정되고 숨어 있던 재능 있는 지휘자들이 발탁되어 최근에는 주중에도 교회 각 방마다 찬양연습 소리가 울려 퍼져, 시공 중인 추가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소음마저 잠재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년 전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한 몇몇 교구에서 반드시 만회할 것을 목표로,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연출을 위한 비밀스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흘러 나와, 각 교구간사들이 모여 있는 간사실에서는 서로의 비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은근한 첩보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교단대회는 대회당일 발표되는 각 교구간의 찬양실력을 뽐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찬양실력을 뽐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준비과정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교회 전체가 한 가족 됨을 확인...



두 달 가까운 연습과 준비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교구 가족들을 불러내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찬양의 잔치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한 가족 됨을 확인하는데 그 개최목적이 있음을, 수준 높은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나이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과 각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는 물론, 모든 젊은이들까지 한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져 연습하면서, 또 같이 웃음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만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을 보내는 온 교회가 5월의 싱그러운 풀내음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랑하는 교우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초등부 연합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린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이 찬양대의 노랫소리는 어리지만 순진하고 예쁜 천사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감동 시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것이다. 바리톤 청년부의 오명걸 형제가 찬조출연하며 지휘에 김지현 선생 그리고 반주에 박재원 선생이 수고 한다.

2008 봄 시즌 제9회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 정오음악회(5.6)는 박혜선 선생(광림교회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6일(화) 서울강남노회 42회 정기노회에 우리교회 부목사들과 총대장로(오정수, 정병무, 김대호, 이영기, 하영수, 서문석, 민순구, 홍성주, 이관규)들과 함께 참여한다. 8일(목) 한국 군선교 신학 심포지움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 전화번호 변경 : 이남호 장로 여옥기 권사 가정 031-705-8095

■ Jay Kronish 선교사 사임 : 이스라엘로 파송되었던 Jay Kronish 선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특남 : 6교구 송상준집사 · 김수연4집사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 제2 스테반회(5.4) 제1권사회(5.11)

■ 금주의 식사 : 김규성 집사 정현숙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최영자 집사 가정 : (손자강지훈 돌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8기 인도 단기선교단 접수 마감

오는 8월 인도로 파송되는 8기 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의 접수를 다음주일로 마감한다. Mission to India, the Land of Secret!(인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를 주제로 단기선교단은 5월7일(수)부터 7월30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준비모임(교육)을 갖는다. 단기선교단은 자비량 선교로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항공료, 숙박, 선교비용 등)이 예상된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북핵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우리교회는 '북한 핵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추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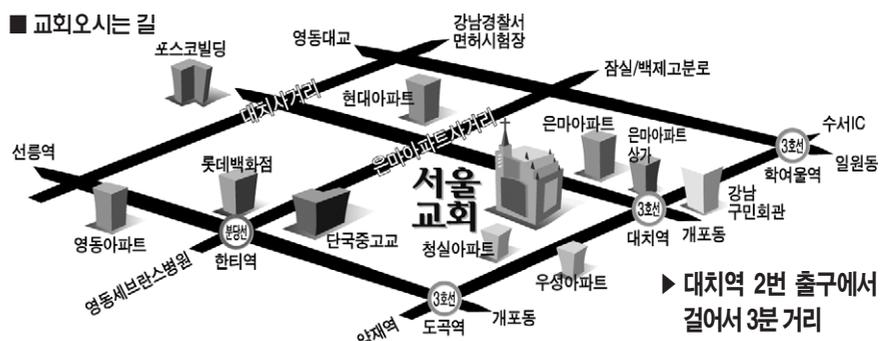
성도들은 교회에 비치된 서명전단에 서명해 주기 바라며 직장과 학교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아들이 교회 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 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 6.6-25까지 열리는 흥해작전을 위하여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